

한라시론



유 동 형
진로·취업컨설팅 편편집 대표

안되면 방법을 달리하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V000 공항점 2020년 3월 1일 오픈예정' 광고판을 봤다. 내가 그것을 본 것이 11월이었는데 그때까지 버스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식당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어서 주로 방문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로 1년간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업하는 분들의 고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롭

게 방법을 달리해서 극복하는 사례들이 있다. 내게 이메일이 하나 왔다. 게스트샵 트샵센터에서 온 메일인데, 집단상담을 중화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니 참가하라는 내용이였다. '아, 참 신기하네. 상담을 화상으로 하다니, 개인 상담이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단 구성원간의 집단역동이 중요시되는 집단 상담을 화상으로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아니면 시도도 안 했을 일인데 시도했다고 한다. 몇 번 화상상담을 진행해보니 몰입도가 직접 대면 상담과 별 차이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 편안해서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물론 대면 상담 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훌륭해 보인다. 우리 집 근처에 '선00 피자'가 문

을 열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인 3월 경에 오픈했다. 다른 업종이라면 타격이 크겠지만, 배달 위주뿐만 아니라, 방문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할인 행사까지 병행하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달 오토바이와 방문 고객들이 실 사이 없이 드나든다. 물론 맛도 훌륭하다. 매장에서 식사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면 큰 타격이 있었겠지만, 위기를 재빨리 감지하고 배달 위주로 전환한 덕분인지 지금도 잘 되고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어, 머리 잘 썼네!' 하는 정도로만 보이겠지만 '당사자인 사장님은 얼마나 마음 좋으며,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을까? 생존의 기로에서 얼마나 피를 말리며 고민을 하셨을까?' 다행히 방법을 달리해 위기를 넘겼다. 집단모임 금지로 헬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마냥 먼지만 뉘 수 없었던 사장님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개별

홈트레이닝으로 회원들에게 헬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로 야외 활동을 못하니, 헬스장에서라도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헬스장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으로 개별 지도를 해주니까 인기 만점이다. 동영상만 만들어서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zoom상으로 모두를 연결해 다같이 참여하는 홈트레이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소만 달리할 뿐 이전의 헬스를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대만족이다.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환경이 달라졌을 뿐, 고객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대로 수요를 공략하면 된다. 공부하면 통한다고 안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 보자.

편집국 25시

코로나와 관광객



이 상 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어머니는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다. 남편 기일인데 제사 준비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된 하루가 될 것이 뻔했지만, 어머니에겐 그건 큰 문제가 아닌듯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풀이 죽고 말았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형은 제사 때 집에 못왔다. 비행기 표까지 끊었던 형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제사를 하루 앞두고 고향행을 포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한번도 고향집을 찾지 못했던 형은 '미안하다'고만 했다. 코로나19로 생이별한 가족들이 많다. 물에 가족을 둔 제주도민이라면 그 사정이 더 딱했으리라. 고향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가족의 심경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 관광객을 바라보는 도민들 심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마음 한편에선 들뜬 표정의 관광객이 원망스럽다가도, 한편에선 관광객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했다. '개념있는 관광객만 제주에 와달라'고 호소하는 건 이런 복잡한 사정들 때문이다. 한때 제주를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관광객들 사이에선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제주 여행을 하는데 이런 불편까지 감수해야 한다니, 당연한 반응이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관광객에게만 불편을 강요한 일방적 처사가 아니라 단점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 관광 1번지 제주엔 여행은 커녕 동네 마트도 제대로 못가는 도민과, 이번 대책으로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많은 관광산업 종사자가 더불어 산다. 불편을 겪을 관광객에게 이해를 구하려면 도민 스스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한다. 개인 방역이 무너지면 우리 설득의 논리를 잃는다. 그래서 새해 첫 주말 출입 제한 권고에도 도내 천연 눈썰매장이 도민들로 북적였다는 소식은 뼈아프기만하다. 그동안의 고통을 한순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기엔 우리가 견뎌온 시간은 너무나 길지 않았던가.

뉴스-in

허법률도 기획조정실장 호된 신고식

도의회 반발·논란 진화 진땀
○...지난 4일자로 신임 발령된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하루만에 신고식을 툭툭히 치렀다는 평가. 제주도 예산부서가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심의·의결해 증액한 올해 예산 중 126억여원을 배정 유보한다는 계획이 담긴 알람 공문을 도본청 등 전부서에 지난 4일 시행한 사실이 5일 알려지면서 도의회 반발을 사는 등 논란. 허 실장은 6일 의회와 협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 변경 공문 시행 계획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 진화에 진땀. 오은지기자
이웃돕기성금 기탁한 학생들
○...학생들이 남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부를 만져 번 돈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해 눈길. 한국부티고등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기업 3곳(헤어·피부·카페)은 지난 5일 2020년 한 해 동안 벌여

들인 수익금 144만5000원을 굿네이버스에 기탁. 이들 학교기업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저렴하게 미용 서비스 혹은 커피 등 차를 제공하는데, 두 피커어를 5000원에 제공하는 등 대부분의 요금은 시중보다 1/3싼 가격으로 제공. 송은범기자
상·하수도정비사업 긴급 발주
○...서귀포시가 태풍·집중호우시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남원읍 태흥3리 침수지구 우수처리시설 사업 등 공사를 긴급 발주. 서귀포시는 조기발주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난해 실시실계·행정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오는 6월 이전에 우·오수관로 및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 등 관련 공사를 완료해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 현영종기자

사설

이참에 양돈장 악취 확실히 해결하라

제주지역 양돈장의 악취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악취 관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와서 그렇다. 도내 양돈장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역 양돈장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등 10여개 지역의 양돈농장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고시의 근거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역 악취문제는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양돈악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악취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양돈장 악취 민원은 2017년만 해도 727건이었던데 2018년 1500건에 이어 2019년에는 1899건으로 늘었다. 양돈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읍 주민들이 양돈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겠는가.

과다·부당한 배송비, 제주도민은 '봉'인가

도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특수배송비의 과다·부당 요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가 합리적 기준이나 관련 제도를 두지 않다가 과다한 요금 청구사례로 비난을 사고 있다. 도민들은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란 불만까지 쏟아내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말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이후에도 관련 사례들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다 추가 배송비로 99만원, 또다른 사이트에선 20만원이란 사실에 경악했다. 1만5000원짜리 식품 주문에 배송비를 더하면 최종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일부 업체가 도서지역 배송불가 공지를 않고, 배송비를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책정해 주문 자체를 막으려 한 행위라지만 의도치 않게 과다 배송

비를 결제하는 도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로서는 경제적 피해 우려에도 조롱까지 받는 기분이 들 충격적 사례다. 특수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는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다. 도가 작년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의 경우 2596원으로, 타 지역 527원보다 4.9배나 높았다. 항공기·선박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특수배송비를 소비자에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이 지난 2017년 조사한 결과도 택배 한개당 해상운임원가는 500원인데 반해 택배요금은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나왔다.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기준이나 관련 제도 마련은 더 미루지 못할 시급한 현안이다.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로 급변하면서 택배산업 비중도 날로 커지는 상황인데 도민들을 '봉'으로 삼는 일부 업체 업체들은 두고만 봐서도 안된다.

부 고
강춘화(지역업) 어머니 청주좌씨 복순(향년 94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5일 14시 3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8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강춘화 며느리 심재순
딸 강춘월 사 위 양일화
연 옥 이기욱
인 옥 강인규
신 옥
손 강민관
※ 연락처 : 강춘화 010-9839-3332
강춘월 010-2695-712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해생(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7일
아 들 김현식 며느리 김이자
철식 김경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현강공 인경(前 6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7일
부 인 장정숙
아 들 강호철 며느리 홍은희
훈철 정현주
봉철 문기주
딸 강태임 사 위 카스라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를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동래정공 기택(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7일
미망인 김숙자
아 들 정충익 며느리 현민숙
복익 상익 조임선
딸 정명순 사 위 허창진 오종은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 락 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